

제4회 본부간부회 · 결성 70주년 청년부총회에서(요지)

2021년 7월 14일

○ 하라다 미노루(原田稔) 회장

지용(地涌)의 사명에 불타 일어선 동지에게 감사

이체동심(異體同心)의 단결로 연전연승을

‘제4회 본부간부회’ 및 ‘청년부 총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월 4일에 실시된 도쿄도의회(東京都議會) 의원(議員) 선거(選舉)에서의 공명당(公明黨)의 23명 완승(完勝), 대단히 축하합니다. (박수)
도쿄개가(東京凱歌)를 위해 분주(奔走)해 오신 전국의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코로나화(禍) 속에서, 전례 없는 제약(制約) 하에 치러진 선거전이었기에 당초, 일반지 등에서는 “공명(公明) 도의원 선거 ‘전원 당선’에 불안” “공명당은 도의원 선거에서 ‘대량 낙선’의 위기” 등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이례적(異例的)인 역경(逆境)을 앞에 두고 방관자(傍觀者)를 작정하는 변명 따위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비판이나 불평을 방패로 삼아 도망을 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지용(地涌)의 사명(使命)에 일어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집념(執念)어린 기원(祈願)과 행동(行動) 그리고 전 동지의 이체동심(異體同心)의 단결(團結)로 하마평<下馬評 : 후보자(候補者)에 관(關)하여 민간(民間)에 떠돌아다니는 풍설(風說)>을 완벽히 뒤집고 통쾌(痛快)한 대역전(大逆轉) 승리(勝利)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케다문하(池田門下)로서 “‘설마’가 실현(實現)”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드높이 선언하고 싶습니다. (박수)

지금까지 이케다(池田) 선생님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신 대로, 광선유포(廣宣流布)라는 것은 단순히 학회원(學會員)의 확대(擴大)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부패(腐敗)를 척결(剔抉)하고 민중(民衆)이 주역(主役)인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진출(進出)하여 묘법(妙法)의 인간주의(人間主義)를 꽂피우는 그 ‘흐름’ 그 자체가 광선유포입니다.

그리고 또 광선유포란 부처(佛)와 마(魔)와의 치열(熾烈)한 공방전(攻防戰)이기도 합니다. 마(魔)는 ‘마의 국토(國土)’를 넓히려고 필사적으로 계략을 부리고, 우리 부처의 군세(軍勢)는 ‘부처의 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입정안국(立正安國)’의 언론전(言論戰)입니다.

즉, 우리가 추진(推進)하는 지원활동(支援活動)은 ‘불법(佛法)의 자비(慈悲)를 근간(根幹)으로 한 인간주의의 정치(政治)’를 실현(實現)하기 위한 종교운동(宗教運動)의 일환(一環)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해 우리 자신의 인간혁명(人間革命) – 바꿔 말하자면 기원을 근본으로 모든 사람의 불성(佛性)을 끝까지 믿고 모든 사람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정을 넓히는 가운데, 자기의 경애(境涯)를 넓혀가는 실천(實踐)이야말로 근본(根本) 중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불연(佛緣)이 맺어지면 학회(學會)에 대한 이해(理解)와 공감대(共感帶)가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학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승부의 10년. 우리는 이케다 선생님 슬하에서 ‘학회의 영원성(永遠性)’ 나아가 ‘광포(廣布)의 영원성’을 확립해 가기 위해 단연코 연전연승(連戰連勝)을 완수해 가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의 상황에 따라, 사회 활동이 어지럽게 좌우되는 현재, 물론, 우리 개개인의 생활이나 활동의 본연(本然)의 자세도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우리는 전례 없는 혐난(險難)한 봉우리를 목표로 하는 이상, 거기에 전례 없는 마(魔)의 열풍(烈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승리를 위해 또 자기 자신의 일생성불(一生成佛)을 위해 재차 ‘단결(團結)’의 중요성을 함께 확인해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소설 『신(新) · 인간혁명(人間革命)』 제30권(상)에 이렇게 엮어주셨습니다.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실망감을 갖거나 감정적이 되어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심(信心)을 부술 뿐만 아니라 광선유포(廣宣流布)를 파괴(破壞)하는 작용이 되어 갑니다.”(원문직역)라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장래를 위해 광선유포를 지향(指向)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철칙(鐵則)이 무엇인지 감히 말해 남기겠습니다. 그것은 금강불괴(金剛不壞)의 이체동심(異體同心)의 단결(團結)입니다.”(원문직역)

이 지도(指導)는 지금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미래에 영원히 이어질 이 케다문하가 계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침(指針)이라고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퇴전(退轉) · 반역(反逆)의 방정식(方程式)을 이렇게 갈파(喝破)하셨습니다.

“자기중심이 되면 어서(御書)나 학회지도(學會指導)로 되돌아가는 일도, 이체동심(異體同心)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일도 없어져 버린다. 즉, 본래 불법자(佛法者)의 기본(基本)인, 자신을 응시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자세가 없어져 간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 ‘스승’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을 제어(制御)할 수 없어 그 결과, 아욕(我慾)에 번롱(翻弄)되어 명문명리(名聞名利)로 치달거나 제멋대로인 행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두에게 폐를 끼치고 여러 가지 불상사(不祥事)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신용(信用) 받지 못하게 되어, 청정(清淨)한 학회의 조직(組織)에 있을 수 없게 된다. – 이것이 퇴전 · 반역해 가는 공통(共通)의 구도(構圖)라고 할 수 있습니다.”(원문직역)라는 중요한 지도입니다.

더욱이 최근의 반역자들이 드러내는 추태(醜態)를 보면, 그러한 ‘자기중심’의 자는, 조직운영(組織運營) 상의 방법론(方法論)이나 여러 과제, 혹은 공명당의 정책 등의 찬부(贊否) 등을 대의명분(大義名分)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떳떳하지 못함(꺼림직함)을 덮어 숨기고, 자기정당화(自己正當化)를 도모(圖謀)하려는 것이 상투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대로입니다.

‘광선유포(廣宣流布)’ ‘입정안국(立正安國)’은 어본불(御本佛)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의 어유명(御遺命)이며 그 직계(直系)인 학회의 삼대회장(三代會長)이 불석신명(不惜身命)으로 실현(實現)해 오신 비원(悲願)입니다. 우리는 준엄(峻嚴)한 사제불이(師弟不二)의 정신(精神)으로 일어서서, 매일 만심(慢心)이라는 내면의 마성(魔性)을 타파(打破)하면서, 어떠한 장마(障魔)의 폭풍우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용감히 이것을 단행(斷行)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를 가슴에 품고, 승리의 투구 끈을 조여, 입정안국(立正安國)의 개가(凱歌)의 가을을, 단연코 승리로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박수)

○ 오구시 히로코(大串博子) 여자부장

여성의 진지한 소리가 미래를 연다



도전(挑戰)하고 있습니다.

여자부 결성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때, “여성의 진지(眞摯)한 소리, 여성의 정의(正義)로운 외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와 시대를 크게 이끈다. 미래를 바꾸어 간다.”라는 이케다(池田) 선생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고, 여자부도 발랄(潑剌)하게 입정안국(立正安國)의 대화에

도쿄(東京) 오타총구(大田總區)의 18세의 멤버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이지메)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등교 거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부가 된 지금, “자신은 성실한 행동을 관찰한다”라고 이케다 선생님께 드린 맹세를 꽉 쥐고, 이지메를 했던 상대에게까지 대화(對話). 거기까지 용기를 내는 모습에 놀란 우인이 마음을 바꾸어 반대로 고민을 상담해오기까지 되었습니다.

조후총구(調布總區)의 여자부가 대화를 한, 어느 연배의 남성은 “젊은 여성의 신념(信念)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에 나는 감동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행동하는 단체는 진짜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자부가 진심을 담아 말하는 한마디는, 반드시 상대의 마음에 닿는다고 실감합니다.

올해 3월부터 5월, 공명당은 청년위원회에 의한 정책 앙케이트 ‘보이스 액션 2021’을 실시. 전국에서 70만이 넘는 청년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3일에는 스가(菅) 총리에게 정책 제언을 제출했습니다. 무료 Wi-Fi를 내년 3월말까지 전국 3만 곳에 정비하는 것과 지자체나 기업에 의한 장학금 반환 지원의 확충 등, 젊은이에 다가서는 정책이 전진했습니다.

또한 공명당은 “여성이 빛날 수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빛날 수 있는 사회”라는 생각으로 여성 지원에도 진력(盡力).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코로나화(禍)로 약 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고립되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명당은 고독·고립 대책에 힘을 씀과 동시에 기업으로부터 휴업 수당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휴업 지원금’의 제도도 실현시켰습니다. 이직자나 비정규 고용자의 스킬 업을 목표로 한 리커런트 교육(재배움의 기회)의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명당은 여성 전용 외래의 개설이나 불임 치료의 공비(公費) 조성의 확충 등, 여성의 소리를 듣고 끈기 강하게 실현으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고립된 젊은 여성의 지원을 실시하는 NPO법인 ‘BOND 프로젝트’의 타치바나(橘) 대표는 공명당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同情)을 보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공명당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며 반드시 행동으로 응답해 줍니다.”라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한 사람에게 계속 기대어주는 공명당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케다(池田) 선생님께서는 여자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행복해 졌으면 합니다. – 이것이 나와 아내의 일심불란(一心不亂)한 기원(祈願)입니다.”라고. 현실은 비록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생이 끊이지 않는 날들이라 할지라도 제목(題目)을 부르며 화양자매(華陽姊妹)와 함께 나아가는 청춘은 불행(不幸)으로 끝날 리가 없기에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불굴(不屈)의 전진(前進)을 계속해 가고 싶습니다.

드디어 ‘11·18’에는 “‘여성(女性)의 세기(世紀)’의 본무대(本舞臺)가 개막(開幕)했다.”라는 선생님의 기대에 감싸인 가운데 여자부(女子部)도 여성부(女性部)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합니다.

창가(創價) 여성의 사명이 보다 깊어지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 또한 크다고 느낍니다. 여자부는 모두가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승리를 열겠습니다!”라는 사제(師弟)의 맹세를 세워 “여자(女子)는 가문(家門)을 열고”(어서 1566쪽)라는 어성훈(御聖訓)대로 승리 또 승리하는 사상 최고의 확대의 역사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박수)

○ 니시가타 미쓰오(西方光雄) 남자부장

정의(正義)의 언론전(言論戰)에 청년이 일어선다!

“우리 청년이 일어설 때가 왔다!” 70년 전, 남자부 결성 직후, 이케다 선생님께서는 젊은 동지와 함께 전투(戰鬪) 개시(開始)를 굳게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음 광포(廣布)의 개가(凱歌)를 향해 “일어설 때가 왔다!”고 드높이 선언하며 노도(怒濤)의 대전진(大前進)을 개시하겠습니다.



남자부는 이번 여름, 결성 70주년을 기념하는 ‘대학교생(大學校生)대회’와 ‘체험담(體驗談)대회’를 열도(列島) 각지에서 성대(盛大)하게 개최(開催)합니다. 지금, 전국 1만 명의 대학교생이 약동(躍動)하고 있습니다. 인생 첫 홍교의 결실을 맺은 멤버나 사회에서 승리의 실증을 나타내는 벗 등, 같은 세대의 청년에게 희망과 공감의 유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환희를 가슴에 안고, 여름의 ‘대학교생대회’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격려를 보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리(道理) 증문(證文)보다도 현증(現證) 이상(以上)은 없느니라.”(어서 1468쪽)이라는 어성훈(御聖訓)대로 ‘체험(體驗)’ 이야기로 불법(佛法)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긍지와 확신 그대로, 각지에서 ‘체험담대회’를 활기차게 실시하면서, 신심(信心)의 기쁨을 많은 동지나 우인에게 끝까지 이야기하여 광포확대(廣布擴大)의 돌파구(突破口)를 열어 갑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 투개표(投開票)된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공명당은 1993년 이후, 8회 연속으로 전원 당선. 6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의 표제(標題)에는 금후(今後)의 “도정운영(都政運營), 공명(公明)이 열쇠”라고, 점점 더 공명당의 존재 의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책과 실적을 가진 공명당을 식자(識者)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오 대학(中央大學)의 사사키 노부오(佐々木信夫) 명예교수는 말했습니다. “공명은 반세기 이상에 걸쳐 도의회에서 ‘부채의 요체’로서, 도정운영의 ‘나침반(羅針盤)’ 역을 완수해 왔다.” “‘소(小)가 대(大)를 제압한다’라 말하지만, 도의회 공명당은 제1당의 ‘대’도 제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편 야당은 어떨까요. 일본공산당과 공투(共鬪)한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은 28명이 입후보해, 당선된 것은 절반인 15명. 6일자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서는 “입민(立民)은 국정의 제1야당으로서는 부족한 결과” “부동층의 지지에 확대가 없는 것은 심각”이라고 분석하며 “중의원(衆議院) 선거에서의 야당 공투로 연결할 목적이 있었지만, 지지(支持) 단체의 연합(聯合)은 반발(反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정권(政權)을 선택하는 선거인 중의원 선거에서 (공산당과) 연계한다면, 헌법(憲法)이나 외교(外交) · 안전보장(安全保障) 등 기본 정책의 차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남자부는 거짓과 중상의 실체를 예리하게 끝까지 간파하여 정의(正義)의 언론(言論)으로 규탄(糾撻)해 가고 싶습니다. 공명당이야말로 코로나화(禍)라는 미증유(未曾有)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나침반’이며, 여야당의 가운데 뛰어난 ‘실적제일(實績第一)의 당(黨)’임을 강력하게 끝까지 호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어해설(用語解說)]

이체동심(異體同心)

겉모습은 달라도 내면은 같은 마음이라는 것. 이체(異體)란 넓게 말하면, 연령·성별·직업·사회적 지위 등이 다른 것도 포함된다. 동심(同心)이란, 같은 목적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중국 고대의 고사에서 기인한 말. 『사기(史記)』 등에 따르면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악정(惡政)에 시달리던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군대는 오합지졸의 군대로 겉모습은 제각각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로 이체동심(異體同心)이었기 때문에 매우 적은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구(武具, 무기)를 갖춘 대국의 군이었지만 마음이 제각각으로 동체이심(同體異心)인 은나라의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고 한다.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는 「이체동심사(異體同心事)」(1463 쪽) 등에서 니치렌(日蓮) 문하(門下)는 기성세력(既成勢力)과 비교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의 마음’ 즉 대성인과 같은 마음이며, 법화경(法華經)의 신심(信心)으로 단결하여 있으므로 대사(大事)를 성취할 수 있고, 묘법(妙法)을 광선유포(廣宣流布)해 나갈 수 있다고 문하를 격려 하시고 있다.

입정안국(立正安國)

“정(正)을 세워 나라(國)를 평안케 한다”라고 읽는다. 정법(正法)을 확립하여 국가(사회)의 평화·번영을 수립하는 것.

▷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

일생성불(一生成佛)

이 일생동안에 성불(成佛)하는 것. 니치렌불법(日蓮佛法)이 밝히는 성불.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는 “법화경의 행자는 부처가 말한 대로 수행(修行)한다면 반드시 일생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불할 수 있다. 이를테면 봄·여름에 논을 일구는데 일찍 여무는 품종과 늦게 여무는 품종의 차이가 있더라도 1년 안에 반드시 수학할 수 있는 것이다.”(어서 416쪽, 통해)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은 일생성불(一生成佛)의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성불(成佛)의 ‘성(成)’에 대하여 「어의구전(御義口傳)」에는 “성(成)이란 연다는 의의(意義)”(어서 753쪽)로 되어 있다. 법화경(法華經) 이외의 제경(諸經)은 여러 생(生) 동안 많은 겁(劫)을 거쳐서 수행(修行)을 하여 깨닫게 되는 역겁수행(歷劫修行)을 설한다. 이에 반해 법화경에서는 만인(萬人)에게 불계(佛界)가 갖추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불계를 열어 나타냄으로써 그 몸 그대로 즉시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다. 그래서 범부성불(凡夫成佛) 또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이라고도 한다.

성불이란 현재의 자신과 전혀 다른 특별한 인간이 되거나, 사후(死後)에, 다음 생에 현실세계를 떠난 정토(淨土)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 현실세계에서 그 무엇에도 무너

지지 않는 절대적(絕對的)인 행복경애(幸福境涯)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어의구전」에서 “벚꽃·매화·복숭아·자두꽃이 각각의 특질을 가지듯이 우리도 각각의 특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작삼신(無作三身)의 부처를 열고 나타내는 것이다.”(784쪽, 통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불이란 자기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을 살려 나가 자신을 가장 충실히 하는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 전체가 정화(淨化)되어 본래 가지고 있는 작용(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힘찬 경애(境涯)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성불이란 어떤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묘법(妙法)을 수지(受持)하고, 악(惡)을 멀하고, 선(善)을 일으키는 싸움을 계속해 가는 그 경애가 부처의 경애이며, 끊임없이 광선유포(廣宣流布)에 계속 싸우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부처인 것이다.

▷ 즉신성불(卽身成佛) / 역겁수행(歷劫修行)

불석신명(不惜身命)

「법화경권지품(法華經勸持品)제13」의 문(文, 법화경 412쪽). “신명을 아끼지 않고”라고 읽는다. 불법구도(佛法求道)를 위해 또한 법화경(法華經) 홍통(弘通)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같은 「권지품」의 “아불애신명(我不愛身命)”(법화경 420쪽) 또한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제16」의 “부자석신명(不自惜身命)”(법화경 490쪽)과 같은 뜻.

▷ 일심욕견불(一心欲見佛) · 부자석신명(不自惜身命)

현증(現證)

가르침의 올바름을 보증(保證)하는 삼증(三證, 문증(文證) · 이증(理證) · 현증)의 하나다. 현실의 증거. 그 종교의 교의(敎義)를 바탕으로 신앙을 실천한 결과가 생명과 생활,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다.

▷ 삼증(三證)